제조업내 산업 및 기업의 부실징후 변화와 시사점[1)]

요 약

본고는 산업의 부실징후와 기업의 부실징후를 각각 스펙트럼 방식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산업의 부실징후 스펙트럼과 기업의 부실징후 스펙트럼을 통합하여 분석한다.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은 부실징후 산업과 기업의 비중이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의 관점에서, 경쟁력 약화산업 특히 내수와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산업분야의 비중이 최근 상승하는 반면, 생산이 플러스성장을 하는 분야의 비중은 줄어들고 또 경쟁력 양호 분야는 반도체 등 일부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경향을 보였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실성-건전성'의 스페트럼상 부실성의 정도는 상승하고 건전성의 정도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자간 통합의 관점에서는, 2019년 현재 양호기업이든 부실기업이든 기업들이 '경쟁력이 양호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패턴은 매우 약한 반면,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패턴이 지배적이다. 또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부실징후 기업들'의 분포가 심지어 금융위기 경기침체기인 2009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늘어났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산업·기업구조조정 압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고 경기회복과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호전되는 산업·기업 분야와 구조조정으로 내몰리는 산업·기업 분야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조조정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 예로서 선제적 구조조정의 측면에 국한하여 보자면, 기업활력법에 의한 사업재편 지원이 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더 나아가 미래의 메가트렌드가 산업기업 구조개편에 미치는 영향 가능성에도 대응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탄소중립, 저출산, 고령화 등 메가트렌드는 필연적으로 사양산업 분야나 위기지역을 태동케 하는 한편, 신기술산업으로의 개편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이러한 잠재적 구조개편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 본고는 오영석 외(2020), 「산업구조조정 압력의 유형분석과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3장의 관련부분을 토대로 일부의 내용을 변화시키고 일부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1. 머리말

산업의 경쟁력이나 부실성은 산업에 따라 차별성을 가질 것이므로 경쟁력 혹은 부실성이 가장 큰 산업에서부터 가장 작은 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다. 또 기업의 경쟁력이나 부실성도 기업에 따라 차별성을 가질 것이므로 그 정도도 기업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이나 부실성의 정도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이나 부실성을 총량적인 집계변수로 파악하거나 단선적인 2분법적 방식[2]으로 파악한다면 경쟁력이나 부실성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산업·기업구조조정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이나 부실성을 집계변수나 2분법적 방식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다층적인 스펙트럼 방식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산업구조조정은 산업간 동태적 자원재배분에 관한 이슈를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산업간 동태적 자원재배분의 양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경쟁력이나 부실성을 스펙트럼 방식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산업은 기업들의 집합체이므로 특정 산업의 경쟁력은 그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 혹은 부실성 여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역으로 기업들은 그들이 생산하는 주력 품목의 경쟁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 혹은 부실성 여부는 그들이 활동하는 산업의 경쟁력 여건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산업구조조정 압력이나 기업구조조정 압력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부실성 여부나 기업의 부실성 여부를 별개로 분석하기보다는 산업의 부실성 스펙트럼과 기업의 부실성 스펙트럼을 매트릭스적으로 통합하여 분석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의 부실성 여부와 기업의 부실성 여부는 상호 의존되고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별개로 분석하고 이해하면 인식, 판단, 대응 등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산업의 부실성과 기업의 부실성을 각각 스펙트럼 방식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산업의 부실성 스펙트럼과 기업의 부실성 스펙트럼을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2장에서는 제조업내 산업의 부실징후 변화를, 3장에서는

2) 2분법적 방식이란 예컨대, 어느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선 이하면 부실징후 산업이나 기업으로 정의하고 그 이상이면 부실징후 산업이나 기업이 아니라고 정의하는 식별 방식을 말한다.

제조업내 기업의 부실징후 변화를 파악하고, 4장에서는 산업의 부실성과 기업의 부실성을 통합하여 분석한다. 5장에서는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제조업내 산업의 부실징후 변화

여기에서는 산업경쟁력의 스페트럼을 식별하는 모형 즉, 가장 경쟁력이 없는 산업군(그룹1)에서부터 가장 경쟁력이 있고 양호한 산업군(그룹7)에 이르기까지 7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모형(〈표 1〉 참조)을 통해서 제조업내 산업의 부실징후 변화를 살펴본다.

경쟁력 약화 업종이 속한 그룹(그룹1-그룹3)과 경쟁력 양호업종이 속한 그룹(그룹4-그룹7)의 부가가치가 제조업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쟁력 약화 업종들의 부가가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

3) 경쟁력 약화업종은 결국 내수와 수출의 실질성장률이 적어도 하나가 마이너스인 업종, 경쟁력 양호업종은 내수와 수출의 실질성장률이 모두 플러스를 유지한 업종으로 정의된 것이다.

〈표 1〉 부실징후 산업·품목의 식별 모형: 상호배타적 식별 모형

<table>
<tr><th></th><th>Y</th><th>Ad</th><th>X</th><th>과잉공급 여부</th><th>부가가치 성장 (산업의 성과)</th><th>상호배타적 식별 영역</th><th colspan="3">경쟁력 및 성장 패턴</th></tr>
<tr><td rowspan="4">양호</td><td>+</td><td>+</td><td>+</td><td>+</td><td>gi>GDP</td><td>그룹7</td><td rowspan="4">유형4</td><td rowspan="3">비과잉 공급</td><td>고성장</td></tr>
<tr><td></td><td></td><td></td><td></td><td>gi≒GDP</td><td>그룹6</td><td>중성장</td></tr>
<tr><td></td><td></td><td></td><td></td><td>0<gi<GDP</td><td>그룹5</td><td>저성장</td></tr>
<tr><td></td><td></td><td></td><td>–</td><td></td><td>그룹4</td><td colspan="2">과잉 공급</td></tr>
<tr><td rowspan="7">경쟁력 약화 업종</td><td>+</td><td>+</td><td>–</td><td></td><td></td><td rowspan="2">그룹3</td><td colspan="3" rowspan="2">유형3</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3" rowspan="2">존재하지 않는 영역</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rowspan="2">그룹2</td><td colspan="3" rowspan="2">유형2</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그룹1</td><td colspan="3">유형1</td></tr>
</table>

자료 : 오영석, 박성근, 박유미(2018), 「부실징후 산업, 기업의 식별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주 : 1) Y가 +(–)는 생산의 성장률이 +(–), Ad가 +(–)는 내수의 성장률이 +(–), X가 +(–)는 수출의 성장률이 +(–), 과잉공급이 –(+)는 과잉공급상태(과잉공급이 아닌 상태)를 의미함.

2) 유형1: 내수와 수출 모두 경쟁력 상실→생산 감소, 유형2: 내수와 수출 중 하나가 경쟁력 상실→생산 감소, 유형3: 내수와 수출 중 하나가 경쟁력 상실→생산 증가, 유형4: 내수와 수출 모두 성장→생산 증가.

3) gi: 해당 산업군의 실질부가가치 성장률, GDP: 제조업의 실질부가가치 성장률.

4) 여기에서 내수(Ad)는 통상적 정의로서의 내수가 아닌 "국내생산으로 충당되는 내수분"를 말함.

을 유지해 왔다. 2019년에 경쟁력 약화업종의 부가가치 비중은 71.1%, 경쟁력 양호업종의 비중은 28.9%였다.

경쟁력 약화업종이 속한 그룹들의 부가가치 비중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비중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 65.7%에서 2014년 53.8%로 낮아졌다가 그 이후 다시 높아져 2019년에는 71.1%를 기록했다. 이 중에서도 내수와 수출의 실질성장률이 모두 마이너스이면서 생산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그룹1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룹1의 비중은 2009년 21.5%에서 2012년에 2.4%로 낮아졌으나 그 이후 다소 변동폭은 있으나 상승해 2019년에는 24%를 기록했다. 그룹2(내수와 수출 중 하나가 마이너스 성장이면서 생산도 마이너스 성장)의 비중은 30% 내외의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룹3의 비중(내수와 수출 중 하나가 마이너스 성장이면서 생산은 플러스 성장)은 2012년 46.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9년에 15.8%를 기록했다. 결국 생산이 플러스 성장을 하는 산업분야의 비중은 줄어들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분야 특히 내수와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분야의 비중은 늘어난 것이다.

양호업종 그룹 중에서는 특히 그룹7(내수, 수출, 생산이 모두 플러스성장+비과잉공급+부가가치 성장률이 제조업평균 상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나머지의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그룹7의 부가가치 비중은 등락하는 가운데 2019년에 22.7%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19년 22.7%의 비중내 산업구성을 보면 반도체가

〈표 2〉 제조업내 경쟁력 약화업종과 양호업종의 유형별 비중 추이

단위 : %

등급	그룹	2008	2009	2012	2013	2014	2017	2018	2019
양호업종	그룹7	12.8	25.8	14.1	13.4	31.8	6.6	27.3	22.7
	그룹6	12.0	0.0	0.0	3.7	1.0	6.8	8.9	0.6
	그룹5	13.4	0.0	0.2	11.7	1.4	3.9	0.0	0.0
	그룹4	14.2	8.5	5.8	9.4	12.0	5.3	3.8	5.7
	계	52.4	34.3	20.1	38.2	46.2	22.7	40.0	28.9
경쟁력 약화 업종	그룹3	19.3	23.8	46.7	17.8	14.6	44.3	11.3	15.8
	룹2	21.9	20.4	30.8	30.5	33.1	24.9	35.2	31.3
	룹1	6.4	21.5	2.4	13.5	6.1	8.1	13.5	24.0
	계	47.6	65.7	79.9	61.8	53.8	77.3	60.0	71.1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관세청 무역데이터의 기초데이타를 토대로 저자 추정.
주 : 1) 각 그룹의 식별은 KSIC3단위에서 식별
2) 비중 수치는 각 그룹의 실질부가가치가 제조업 전체 실질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65.5%의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양호업종은 주로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것이다. 양호업종에 속하면서 동시에 과잉공급상황을 보이는 그룹4의 비중은 10% 이내의 비중을 유지하고 2019년에 5.7%[4]를 기록했다.

3. 제조업내 기업의 부실징후 변화

본 절에서 기업의 부실징후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된다. 첫째, '부실징후기업' 및 '한계기업'의 비중 변화를 통해 부실징후 변화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기업의 부실징후 변화를 '부실징후 기업' 및 '한계기업'의 단선적인 기준을 통해 이해하기보다는 전체 기업군을 대상으로 가장 건전한 기업군에서부터 가장 부실한 기업군에 이르는 '건전성-부실성'의 다층적 스펙트럼을 식별하고 그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1) 제조업내 부실징후기업 및 한계기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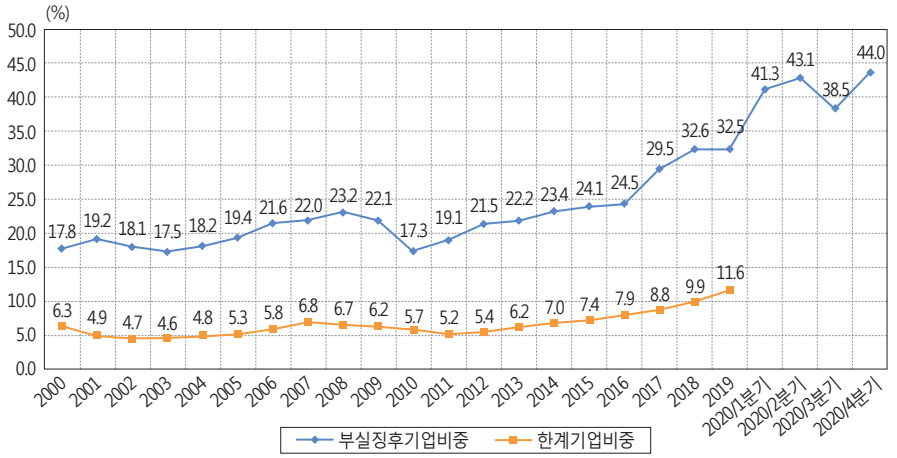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체 외감기업 중에서 부실징후기업[5]과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실징후 기업의 비중은 금융위기의 시기인 2008년에 23.2%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그 직후 기업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2010년 17.3%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그 이후 부실징후 기업의 비중은 급격하게 상승하여 2019년에 32.5%를 기록했고, 2020년 4분기에는 44%로 더욱 높아졌다. 한계기업의 비중도 2008년에 6.7%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그 직후인 2012년에 5.4%까지 낮아졌으나, 그 이후 다시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에 11.6%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제조업은 부실징후기업과 한계기업의 비중이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또 이러한 부실성의 수준이 금융위기 시의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 기업구조조정 압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여기서는 양호업종이면서 동시에 과잉공급업종의 비중이 5.7%라는 것이고, 경쟁력약화업종이면서 과잉공급에 있는 업종은 배제되어 있으므로 실제 과잉공급업종의 비중은 적어도 이보다는 클 가능성 있다.

5) 부실징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당해연도에 1미만인 기업이고,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들을 말한다.

〈그림 1〉 제조업내 부실징후기업 및 한계기업의 비중 변화



자료 : NICE평가정보의 기초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추정.

주 : 1) 비중은 제조업 전체 기업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외감기업대상이며, 2020년 분기별 부실징후기업은 상장사만 대상.

3) 부실징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당해연도 1미만인 기업,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임.

(2) 제조업내 부실징후기업군-양호기업군의 유형별 변화

여기에서는 오영석 외(2018)의 모형을 통해 제조업의 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장 건전한 기업군에서부터 가장 부실한 기업군에 이르는 '건전성-부실성'의 다층적 스펙트럼과 그 변화를 살펴본다(〈표 3〉 참조). 이 모형은 기업의 경쟁력 스펙트럼을 가장 경쟁력이 없고 부실한 기업군(그룹1)에서부터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군(그룹8)에 이르기까지 8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조업내 부실징후 기업군들 즉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의 유형별 추이는 〈그림 2〉에 나타나 있고, 양호 기업군들 즉 그룹5에서부터 그룹8까지의 유형별 추이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먼저, 제조업내 부실징후 기업군의 비중 변화를 보면, 모든 부실 기업그룹들의 비중이 최근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부실성의 정도가 가장 높은 그룹1(경제적 부실+재무적 부실+과도한 부채+완전자본잠식)의 비중은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1.4%에서 2019년에는 3.1%로 상승했다. 다음으로 부실성의 정도가 높은 그룹2(경제적 부실+재무적 부실+과도한 부채)의 비중은 2009년 5.1%에서 9.0%로 높아졌다. 또 그룹3(경제적 부실+재무적 부실)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6.4%에서 10.7%로 높아졌고, 그룹4(재무적 부실)의 비중은 9.1%에서 9.8%로 높아졌다.[6]

〈표 3〉 부실징후 기업의 식별 모형: 상호배타적 식별 모형

	영업 이익률	이자보상 배율	부채 비율	자본 잠식	상호배타적 식별 영역	비고
양호 기업	+(pi>p)	+	+		그룹8	영업이익률 제조업 평균 상회
	(pi=0)				그룹7	영업이익률 제조업 평균 수준
	(0<pi<p)				그룹6	영업이익률 제조업 평균 미만
	+	+	−		그룹5	과도한 부채
부실 징후 기업	+	−	+		그룹4	재무적 부실
	+	−	−			
	−	+	+			존재하지 않는 영역
	−	+	−			
	−	−	+		그룹3	경제적 부실+재무적 부실
	−	−	−	+	그룹2	경제적 부실+재무적 부실+과도한 부채
				−	그룹1	경제적 부실+재무적 부실+과도한 부채+완전자본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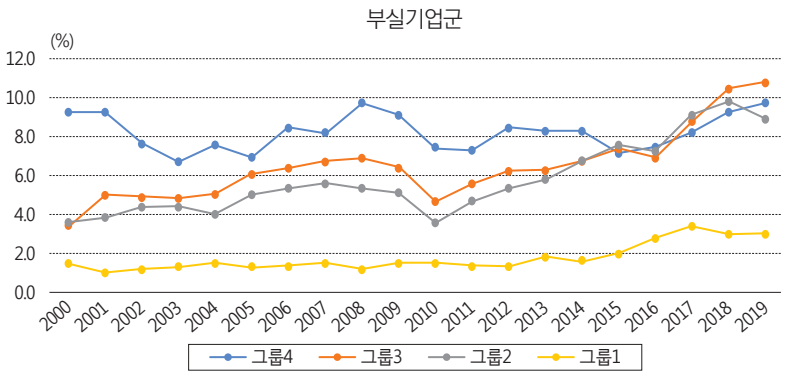
자료 : 오영석, 박성근, 박유미(2018), 「부실징후 산업, 기업의 식별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주 : 1) 그룹1: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경제적 부실),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재무적 부실), 부채비율이 200% 이상(과도한 부채), 완전자본잠식의 기업들.
그룹2: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경제적 부실),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재무적 부실), 부채비율이 200% 이상(과도한 부채), 완전자본잠식은 아닌 기업들.
그룹3: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경제적 부실), 이자보상배율이100% 미만(재무적 부실), 부채비율은 200% 미만인 기업들.
그룹4: 영업이익은 플러스이나 이자보상배율이 100% 미만(재무적 부실)인 기업들.
그룹5: 영업이익 플러스, 이자보상배율 100% 이상이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과도한 부채)인 기업들.
그룹6: 영업이익 플러스, 이자보상배율 100%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 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제조업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기업들.
그룹7: 영업이익 플러스, 이자보상배율 100%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 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제조업 평균인 기업들.
그룹8: 영업이익 플러스, 이자보상배율 100%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 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제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기업들.
2) 영업이익률 +(−)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 이자보상배율 +(−)는 이자보상배율이 100% 이상(미만); 부채비율 +(−)는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상); 자본잠식 (−)는 완전자본잠식상태.
3) pi: 해당그룹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수준, p: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수준

반면, 양호 기업들이라 할 수 있는 그룹5, 그룹6, 그룹7, 그룹8의 비중은 금융위기 직후 시기인 2010년경 이후 최근까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그룹8의 비중은 2010년 이후 2018년까지 낮아지다 2019년에는 다시 높아진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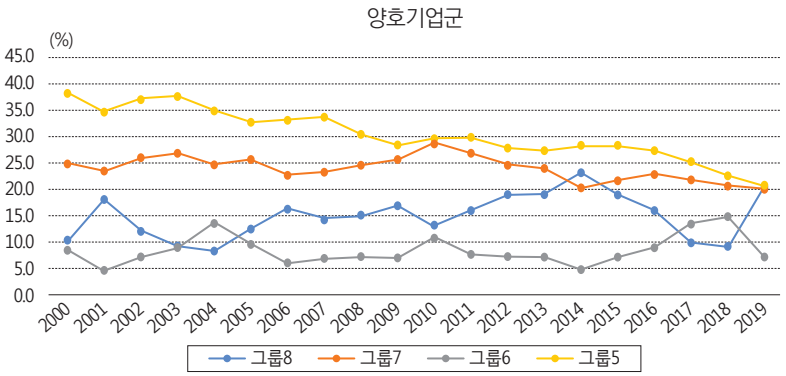
6) 각 기업그룹의 비중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정리한 표는 〈표 4〉 참조.

〈그림 2〉 제조업내 부실징후 기업군의 유형별 추이



자료 : NICE평가정보의 기초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추정(외감기업 대상).
주 : 비중은 해당 그룹의 기업수가 제조업 전체 기업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그림 3〉 제조업내 양호 기업군의 유형별 추이



자료 : NICE평가정보의 기초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추정(외감기업 대상).
주 : 비중은 해당 그룹의 기업수가 제조업 전체 기업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표 4〉 제조업내 부실징후 기업과 양호기업의 유형별 비중 추이

단위 : %

		2000	2005	2008	2009	2012	2013	2014	2017	2018	2019
양호기업	그룹8	10.0	12.7	14.8	17.0	18.8	18.9	23.1	9.7	9.2	19.9
	그룹7	25.1	25.6	24.3	25.6	24.8	24.3	20.3	21.9	20.6	19.9
	그룹6	8.3	9.2	7.0	7.1	7.0	7.1	4.7	13.6	14.7	7.0
	그룹5	38.7	33.1	30.7	28.3	28.0	27.6	28.5	25.3	22.9	20.8
부실징후기업	그룹4	9.3	7.0	9.7	9.1	8.5	8.3	8.3	8.2	9.3	9.8
	그룹3	3.5	6.1	6.8	6.4	6.2	6.3	6.7	8.8	10.5	10.7
	그룹2	3.6	5.0	5.4	5.1	5.4	5.8	6.7	9.1	9.8	9.0
	그룹1	1.5	1.4	1.2	1.4	1.4	1.8	1.7	3.4	3.1	3.1

자료 : NICE평가정보의 기초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추정(외감기업 대상).

요약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는 금융위기 직후 최근까지 부실징후기업군들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업들의 비중은 줄어드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의 전체 분포에서 부실성의 정도는 상승하고 건전성의 정도는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점에서 제조업내 기업구조조정 압력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산업 부실징후와 기업 부실징후의 통합분석

본 절에서는 오영석 외(2018)의 통합모형에 기반하여 산업의 부실징후와 기업의 부실징후를 통합해서 분석한다. 이 통합모형은 앞에서 제시한 산업수준에서 부실성을 식별하는 7개 그룹과 기업수준에서 부실성을 식별하는 8개 그룹을 매트릭스로 연결한 것이다.

〈그림 4〉에는 각각 2009년, 2012년, 2017년, 2019년의 매트릭스 분석결과가 나타나 있다. 각 그림에는 크게 네 개의 상한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산업수준에서는 경쟁력 양호산업과 경쟁력 약화산업 등 2개 그룹, 기업수준에서는 부실징후 기업과 양호 기업 등 2개 그룹으로 대별하여 이들을 매트릭스 구성한 4개의 조합을 나타낸다.[7)]

먼저, 4개 연도의 분석결과와 변화를 보면, 금융위기 시의 경기침체기인 2009년에는 Ⅳ상한(경쟁력 약화산업+양호기업)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었고, 경기회복기인 2012년에는 Ⅳ상한(경쟁력 약화산업+양호기업)과 Ⅰ상한(경쟁력 양호산업+양호기업)에 기업들이 집중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또 2017년에는 2012과 비교할 때 Ⅲ상한(경쟁력 약화산업+부실기업)에 위치한 기업들이 두텁게 분포하고 있고, 가장 최근의 연도인 2019년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를 좀더 풀어서 설명하면, 2009년 금융위기 직후 경제침체기에는 많은 양호한 기업들이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는 산업에서 활동하는 패턴이 지배적이었는데, 경기회복기인 2012년에는 산업경쟁력이 회복되면서 많은 양호한 기업들이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군은 물론 경쟁력이 양호한 산업군에서도 활동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패턴

7) (Ⅰ) 영역은 기업이 양호하고 그 기업이 속한 산업도 경쟁력이 양호한 영역이다. (Ⅱ) 영역은 기업은 부실징후를 보이나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은 경쟁력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영역은 기업은 부실징후를 보이고 그 기업이 속한 산업도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영역이다. (Ⅳ) 영역은 기업은 양호하나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영역이다.

으로 전환되었다. 2017년에는 2012년에 비해 부실한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 부실한 기업들이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패턴도 두드러졌고, 최근 연도인 2019년에는 그러한 패턴이 더욱 강화되었다.

가장 최근의 연도인 2019년 상황에 집중해서 관찰하면 몇 개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2019년에는 산업경쟁력이 양호한 영역인 Ⅰ상한(경쟁력 양호산업+양호기업)과 Ⅱ상한(경쟁력 양호산업+부실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경쟁력 양호그룹인 5그룹과 6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전무하다. 양호기업이든 부실기업이든 그들이 활동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 기업들은 양호기업이든 부실기업이든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둘째, 그 결과 2019년에는 Ⅳ상한(경쟁력 약화산업+양호기업)과 Ⅲ상한(경쟁력 약화산업+부실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지배적이었다. 양호기업이든 부실기업이든 기업들은 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는 산업군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패턴이 압도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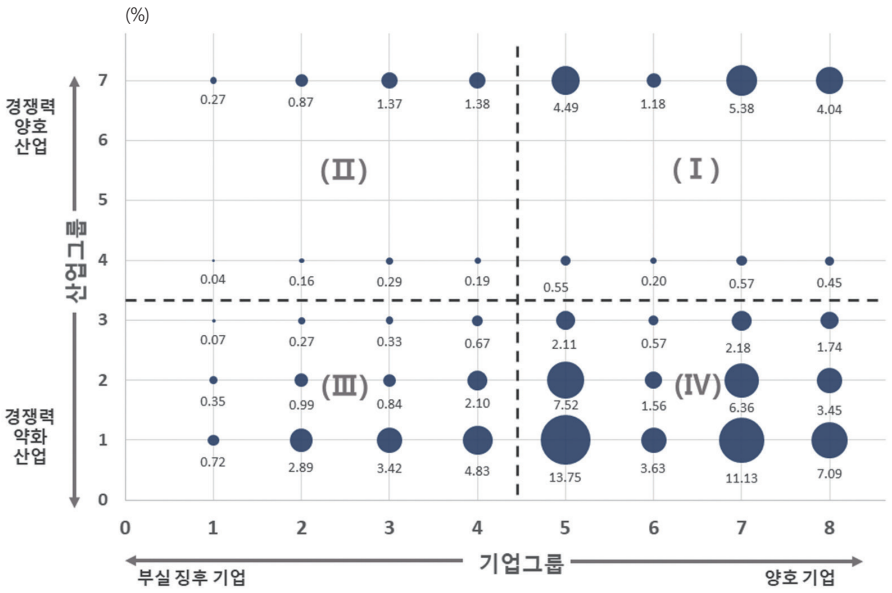
셋째, 특히 2019년에는 부실기업이 크게 늘어나 Ⅲ상한(경쟁력 약화산업+부실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에서 활동하는 부실기업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넷째, 2019년의 상황을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과 비교하면 Ⅰ상한(경쟁력 양호산업+양호기업)과 Ⅱ상한(경쟁력 양호산업+부실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즉 경쟁력이 양호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매우 작다는 점은 공통적인 현상이다. 반면, 2019년에는 2009년에 비해서 Ⅲ상한(경쟁력 약화산업+부실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즉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부실기업들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9년에는 금융위기의 경기침체기인 2009에 비해서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에서 활동하는 부실기업의 분포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산업·기업 구조조정 압력이 더욱 커진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는 2019년에 양호기업이든 부실기업이든 기업들이 경쟁력이 양호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패턴은 매우 약한 반면,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패턴이 지배적이다. 또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부실 기업들의 분포가 심지어 금융위기 경기침체기인 2009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 산업·기업구조조정 압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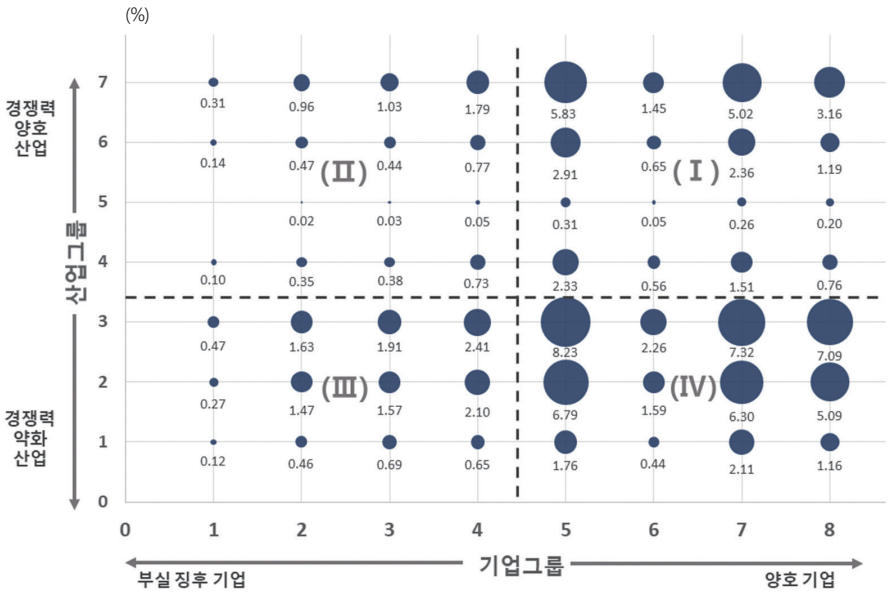
〈그림 4〉 제조업내 부실징후 기업과 산업의 통합식별모형 추정 결과

2009년(3단위, 업체수 : 8,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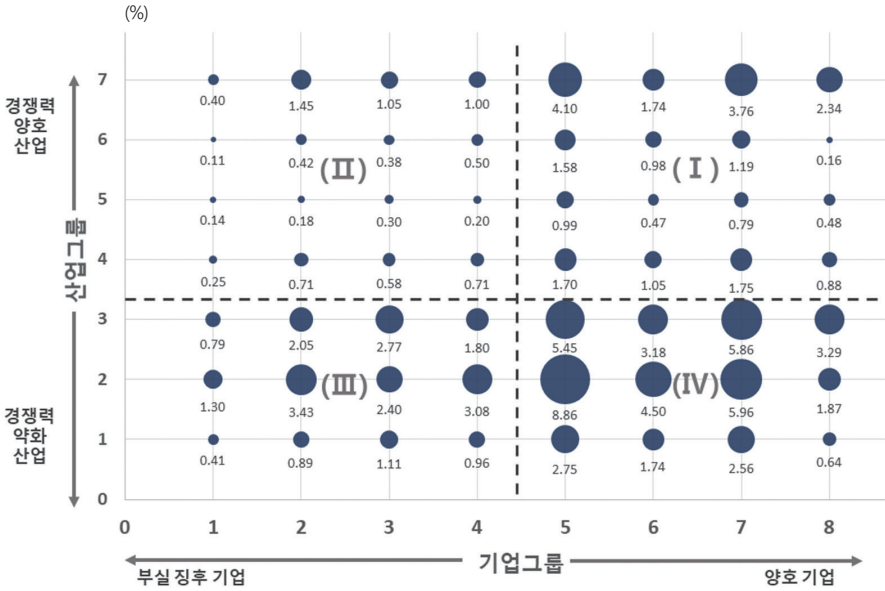
주 : 각 수치는 제조업 전체 외감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012년(3단위, 업체수 : 10,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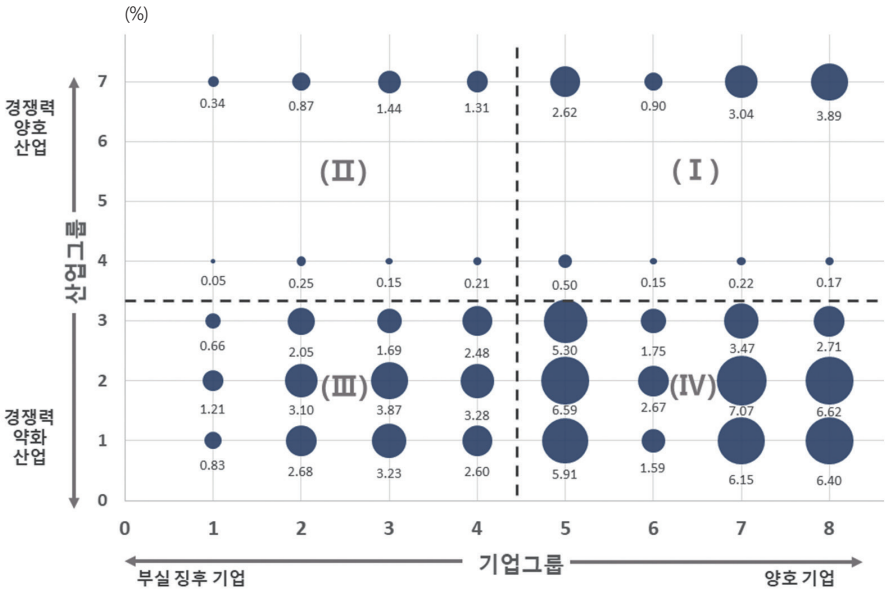
주 : 각 수치는 제조업 전체 외감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017년(3단위, 업체수 : 11,669)



주 : 각 수치는 제조업 전체 외감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019년(3단위, 업체수 : 10,536)



주 : 각 수치는 제조업 전체 외감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5. 맺음말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은 부실징후 산업과 기업의 비중이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의 관점에서, 경쟁력 약화산업 특히 내수와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산업분야의 비중이 최근 상승하는 반면, 생산이 플러스성장을 하는 분야의 비중은 줄어들고 또 경쟁력 양호 분야는 반도체 등 일부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경향을 보였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실성-건전성'의 스페트럼상 부실성의 정도는 상승하고 건전성의 정도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자간 통합의 관점에서는, 2019년 현재 양호기업이든 부실기업이든 기업들이 '경쟁력이 양호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패턴은 매우 약한 반면,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패턴이 지배적이다. 또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군'에서 활동하는 '부실징후 기업들'의 분포가 심지어 금융위기 경기침체기인 2009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늘어났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산업·기업구조조정 압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코로나19의 상황이 호전되고 경기가 회복되어 정부의 코로나 지원이 종식되고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가 도래한다면 적어도 일부의 좀비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시장기능에 따라 정리될 것이다. 다만 최근의 산업·기업구조조정 압력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경기회복과 금리 인상에 따라 호전되는 산업·기업 분야와 구조조정으로 내몰리는 산업·기업 분야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조조정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본 '산업경제' 3월호[8]에서도 지적했듯이, '신성장동력 창출-선제적 구조조정-사후적 구조조정'의 3자가 상호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중 선제적 구조조정의 측면에 국한하여 보자면, 기업활력법에 의한 사업재편 지원이 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즉 기업활력법에 의한 사업재편이 우리나라 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에서 정부의 시장 지원 역할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인센티브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미래의 메가트렌드가 산업기업 구조개편에 미치는 영향 가능성에도 대응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탄소중립, 저출산, 고령화 등 메가트렌드는 필연적으로 사양산업 분야나 위기 지역을 태동케 하는 한편, 신기술산업으로의 개편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러한 메가트렌드에 따라 새로이 부상하는 산업과 사라지는 산업 분야를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발굴하여 원활한 구조개편을 모색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8) 오영석, 박성근, "제조업내 생산확대/축소 부문의 변동과 원인분석", 「산업경제」, 2021.3월호.

오영석
동향·통계분석본부·선임연구위원
ysoho@kiet.re.kr / 044-287-3043
〈주요 저서〉
• 부실징후 산업·기업의 식별에 관한 연구(2018, 공저)
• 한국산업의 과잉공급 이슈분석과 대응방안(2017, 공저)

박성근
동향·통계분석본부·연구위원
sungpark@kiet.re.kr / 044-287-3172
〈주요 저서〉
• 산업구조 변화와 집계 생산성 추세의 장기 패턴에 관한 연구(2019, 공저)
• 부실징후 산업·기업의 식별에 관한 연구(2018, 공저)